

# “이미지 실추 이제 그만 총학은 대화로 풀어야”

### 전남대 교수들, 등록금 투쟁 반대 잇단 표명

전남대 총학생회가 등록금 인상 반대해 지난 14일부터 11일째 총장실 집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전남대 교수들의 반대 입장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김양현 총학과 교수는 24일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절차와 과정”이라며 “더 이상 무리한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는 없으며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하면서 담론의 공간 속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태 사학과 교수는 이에 앞서 지난 21일 교수 및 교직원 교내 통신망인 ‘아르미 토론방’과 전남대 홈페이지 내 자유토론방에 ‘유감스러운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이라는 글을 올려 “학생들의 주장들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총장실을 점거하는 등의 물리적 방법을 동원한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학교가 무한경쟁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 동결이 대학의 주인인 학생들을 위한 최우선적인 방안이며, 총장 불신임투표를 강행하고 총장실

을 점거해 행정을 마비시키더라도 꼭 관찰해야만 할 과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교수는 “학생회가 진정으로 학생들을 대변하는 기구라면 가장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대학의 위상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대학의 위상을 높여 자신들이 대변하는 학생들이 좀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며 사회진출을 할 수 있는가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의 글에 대해 최석만 사회학과 교수도 23일 ‘맞는 말씀입니다’라는 댓글을 달아 동조의 뜻을 피력했다.

전남대 학장단과 대학원장도 지난 20일 교수, 교직원, 학생 등에게 보낸 ‘총학생회에 대한 긴급 호소문’이라는 이메일에서 “총학생회는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서 전남대의 명예와 자존을 지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번 사태로 학사일정 차질, 대학 발전 자금누락 등 피해가 잇따를 경우, 학생들의 사회진출에 유·무형의 지장 초래 등이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영태기자 hwangtae@

## 고용 알선 시스템 문제 없나?

## 중 원인

# 취업에만 치중... 사후관리 소홀

지난해 광주지방노동청 산하 종합고용안정센터의 알선으로 취업한 사람 중 82.2%가 1천500만 원 이하의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본보 24일자 1면)는 정부의 실업난 해소 노력이 질적인 측면보다는 양적인 성장에 치중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안정센터 관계자들은 취업자들의 임금에 낮은 가장 큰 원인으로 이 지역의 열악한 고용시장을 꼽았다. 기자동차와 삼성전자 광주공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높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고용안정센터에 가장 많이 구인을 의뢰하는 하남산단의 경우 대부분 대기업의 협력업체이거나 영세기업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원인은 고용안정센터가 취업알선에는 적극적이지만, 사후 관리에는 소홀했다는 점이다. 센터에 구직을 의뢰한 후 취업한 비율은 ▲2003년 14.5%(3만2천492명 중 4천722명) ▲2004년 12.7%(4만594명 중 5천140명)로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의 청년층(15세~29세) 실업률이 9.7%(1만3천 명)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통계청의 조사결과(2005년 2·4분기)는 고용안정센터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청년들의 3D업종 기피현상도 센터 측에 저임금으로 구인을 하는 기업이 물러가 된 계기가 됐다. 임금이 높은 대기업은 공개채용으로 인원을 충원하지만, 중

소기업은 지원자가 없어 구인을 의뢰한 것이다. 고용안정센터의 전신은 지난 1996년 광주와 서울·대구 등에 설치된 ‘인력은행’이다. 당시 고용안정센터는 취업알선에 전념해야 할 상담원들이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실업급여 등의 행정업무를 떠맡으며 본래 임무에 소홀, 제구실을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 때문에 노동부는 지난해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광주종합고용안정센터도 118명의 직원 중 절반에 가까운 50여 명에게 구직자들의 상담업무를 보게 하는 등 서비스를 크게 개선했다. 지난해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CAP) ▲직업적성·흥미 등 심리검사 서비스 ▲인턴·연수 프로그램

▲직업지도 시범학교 ▲중·고교생 현장체험학습(Job-School) 등의 수혜자를 크게 늘렸다. 2005년 취업자 비율도 15.8%(5만857명 중 8천53명)로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하지만 본보의 이번 조사 결과는 이 같은 개선이 양적인 성장에만 신경을 썼고 질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미흡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특히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좁은 취업의 문을 뚫으려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취업자들의 사후관리가 절실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 광주 대기업 적어 고용시장 열악 청년들 3D 기피로 저임금 악순환

▲직업지도 시범학교 ▲중·고교생 현장체험학습(Job-School) 등의 수혜자를 크게 늘렸다. 2005년 취업자 비율도 15.8%(5만857명 중 8천53명)로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하지만 본보의 이번 조사 결과는 이 같은 개선이 양적인 성장에만 신경을 썼고 질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미흡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특히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좁은 취업의 문을 뚫으려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취업자들의 사후관리가 절실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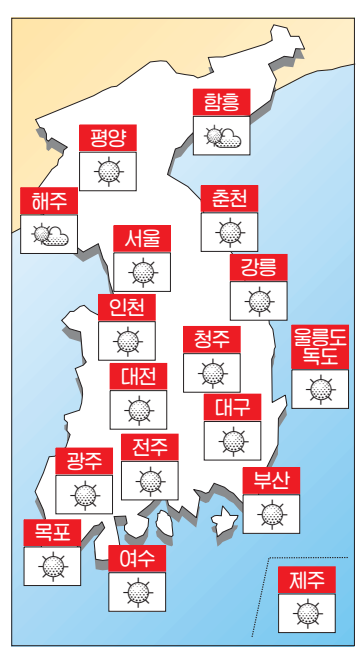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 외출 뒤 손발 깨끗이 4월 25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으나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4월 25일 (음 3월 28일) 전국날씨

광주	맑음, 약한황사	5~22℃
대전	맑음, 약한황사	6~18℃
대구	맑음, 약한황사	8~20℃
부산	맑음, 약한황사	6~19℃
서울	맑음, 약한황사	4~23℃
인천	맑음, 약한황사	4~20℃
안동	맑음, 약한황사	4~20℃
충주	맑음, 약한황사	4~21℃
청주	맑음, 약한황사	4~21℃
포항	맑음, 약한황사	4~19℃
울릉도	맑음, 약한황사	3~19℃
독도	맑음, 약한황사	4~22℃
제주	맑음, 약한황사	1~22℃
경남	맑음, 약한황사	4~21℃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1.5m  
남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5m  
목포 밀물 < 12:17 썰물 < 05:20  
여수 밀물 < 07:21 썰물 < 00:56

▲해돋이 05:49 ▲해질 19:13 ▲달출 04:09 ▲달질 16:22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6(수)	27(목)	28(금)	29(토)	30(일)	31(월)
날씨						
최저/최고	10/14	9/20	7/21	9/23	10/24	10/24

## 유령회사 설립 신보기금 ‘꿀꺽’

### 광주지검, 4억 가로чен 50대 기소

광주지방검찰청 형사1부 조범순 검사는 24일 무역회사를 위장하여 설립, 허위서류를 작성한 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은행대출금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2년 말까에 장갑채는 실을 제조해 수출하는 무역 회사를 설립한 것처럼 위장한 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2억3천만원 등 모두 4억4천만원을 쟁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임씨는 허위 자본금 납입 등의 방법으로 무역회사를

설립한 뒤 ▲학력 ▲사업현황 ▲법인 자본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해 신용보증기금 광주지점에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 9억7천만원 상당의 신용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2억3천만원을 대출받아 도주하는 등 총 4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또 신용보증기금의 ‘현장조사’를 통과하기 위해 화순농공단지에서 부지를 마련하고 토목공사까지 실제 시행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임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이 나오자 토목공사업체에 9천만원의 공사비도 지급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3년 만에 검거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 107개 시민사회단체가 24일 오전 11시 광주 YMCA 무진관에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위정리기자 jrwi@kwangju.co.kr

## 대법 “고법 상고부 설치 原案대로”

광주 등 5곳에 대법원이 사법개혁위원회 원안대로 광주 등 5개지역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법안을 고수키로 했다. 24일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장운기 법원행정처장 명의

로 최근 법원 관사들에게 메일을 보내 “국회 법사위 소속 일부 야당의 원들의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반대 기류가 심해 그 대안으로 서울고법에만 상고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던 것”이라며 “당초 원안을 고수하겠으니, 판사들은 동의하지 말고 재판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방변호사회와 광주고법 판사들은 지난 20일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대법원의 원안과 같이 5개 고등법원에 상고부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국회 법사위와 대법원에 전달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25일 고등법원 내 상고부 설치에 대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

/임주형-이승배기자 jhlim@

## 공익요원 봉사활동 배정 늘린다

### 광주·전남병무청 내년부터

내년부터 사회공익 또는 봉사활동 분야에 대한 공익근무요원들의 숫자가 대폭 늘어날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김노운)은 24일 내년엔 자연환경보존·독거노인 급식배달·저소득층 자녀 학습지도·결식아동 지원 분야에 공익근무요원 배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반

행정보조·시설경비 분야에 대한 복무는 대폭 감축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는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공익성이 다소 낮은 분야는 단계적으로 인원배정을 감축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 분야와 자연환경보존·개선 분야에 대한 인력을 우선 배정해 인력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